



리서치센터 리포트
바로가기

AI 수익성 우려 지속되며 하락

중국 AI 모델 공개로 경쟁 심화 우려 확산
이번 주 빅테크 실적 앞두고 경계감 지속

주요 지표 일간 변동

KOSPI	KOSDAQ	KOSPI200
6,516.27pt (-4.46%)	749.64pt (-5.33%)	1,032.52pt (-4.43%)
달러-원 환율	韓 10년물 국채 금리	S&P500 선물
1,478.00 원 (-8.0 원)	4.3390% (+4.2bp)	7,494.50pt (-0.04%)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주요 수급 동향

	KOSPI	KOSDAQ	KOSPI200 선물
개인	+3,510 억	+1,907 억	-454 억
외국인	+5,235 억	-618 억	+4,676 억
기관	-9,217 억	-1,348 억	-3,570 억

참고: 발간 시각 기준

자료: KRX

KEY DRIVER

- 금일 국내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한국 증시가 휴장인 가운데 글로벌 반도체주가 급락하면서 투자심리가 위축됐습니다. 또한, 중국 기업 문샷이 AI 모델 'Kimi K3'를 공개하면서 AI 경쟁 심화에 따른 수익성 우려를 더했습니다. 낙폭 과대 인식에 장 초반 반도체주가 반등을 시도하기도 했으나, 재차 하락 전환하면서 코스피와 코스닥 모두 매도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이날 KOSPI는 4.46%, KOSDAQ은 5.33% 내렸습니다. KOSPI 거래대금은 약 28.4조원, KOSDAQ은 약 4.8조원을 기록했습니다.(KRX 기준)
- 외국인은 KOSPI를 5천억원 이상 순매수했습니다. 외국인은 KOSPI에서 전기/전자와 건설 업종을 매수했고, 금융과 운송장비/부품 업종을 매도했습니다. 반면, 기관은 KOSPI를 9천억원 이상 순매도했습니다. 기관은 화학과 금융 업종을 매수했고, 전기/전자 업종을 집중적으로 매도했습니다.
- 대부분의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중동 갈등 심화에 유가가 반등하면서 정유주가 상승했습니다. 정부가 재생에너지 설비용량을 확대한다는 보도로 태양광주가 올랐습니다. 반면, 반도체주가 약세를 이어갔습니다. 자동차, 조선, 금융, 소비재 등이 하락했습니다.
- 주요 종목 중에선 OCI홀딩스(+2.78%), KT(+2.10%), S-Oil(+1.24%)이 올랐고, 현대차(-6.12%), 삼성전자(-4.31%), SK하이닉스(-4.23%)가 내렸습니다.

Compliance Note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저작물로서 모든 저작권은 당사에게 있습니다. 본 조사자료는 당사의 동의 없이 어떠한 경우에도 어떠한 형태로든 복제, 배포, 전송, 변경, 대여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주식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 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자료에는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애널리스트의 의견이 정확하게 반영되었습니다.